해외 민주주의, 네트워크가 중요합니다

먼저 2015년 하반기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의 해외 민주주의 관련 주요 일정을 소개합니다.

9월 15일은 유엔(UN)에서 제정한 제7회 '세계 민주주의 날'이었습니다. 올해의 주제는 '시민사회를 위한 공간(Space for Social Society)'입니다. 이날 사업회는 국회에서 기념행사를 가졌습니다.

10월 21~22일에는 '아시아 민주주의 진단–위기인가 전환인가'를 주제로 제3회 '서울민주주의포럼(SDF)'을 개최합니다. 포럼에서 아시아 민주주의에 대한 역사적 성찰, 민주주의의 다양한 과제, 지표를 통한 아시아 국가들의 민주주의 진단 등을 세션별로 다룰 예정입니다.

한편 11월 1일부터 4일까지 열리는 '민주주의를 위한 세계운동(WMD)'에서는 '화해와 통합' 세션도 운영합니다.

나는 1967년 세계교회협의회 청년국 간사를 시작으로 국제사회에서 활동을 해왔습니다. 1970년대에는 세계교회협의회 세계선교위원회 간사, 1980년대에는 아시아교회협의회 총무를 맡으면서 세계 여러 나라의 민주주의에 대해 관심을 가졌습니다.

경험에 비추어보면 각 나라마다 정치·경제·사회 환경이 달랐습니다. 내가 활동하던 시기의 탈식민 저성장 국가에서는 국가 건설(Nation Building)이 우선 과제로 여겨졌습니다. 빈곤탈출, 경제성장, 통합국가 수립 등 각 국가마다 처한 상황과 시급한 과제가 달랐습니다. 민주주의의 보편성을 특정한 이념의 틀에서 각 국가에 적용시키는 것이 힘들다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또한 해외 민주화운동의 역사 그 자체라고도 할 수 있는 '네트워크'의 중요성을 절감했습니다. 각국 활동가들과의 교류를 통한 정보 공유, 현안 해결을 위한 협의와 지원 등이 바로 그것입니다. 1970~80년대 언론이 통제된 상황에서 국내의 민주화운동을 해외에 알릴 수 있었던 동력도 이러한 네트워크 덕분이었습니다. 대한민국이 어려움을 겪던 시기에 많은 국제기구와 단체들이 한국의 민주화운동을 지원했던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최근 몇 년 동안 아시아 각 지역은 혼란을 겪고 있습니다. 선거제도 등 민주주의가 정착하는 측면도 있지만 종교 갈등, 인종 갈등, 자본과 노동 갈등 등 민주주의의 위기도 보입니다.

민주주의를 한걸음 진전시키기 위해서는 이러한 제약들을 극복해야 합니다. 아시아의 여성·인권·장애자·소수민족 운동이 정치적 압박을 이유로 정체되어서는 안 됩니다. 아시아의 각 나라에서 정부의 독주를 막을 수 있는 시민사회의 형성과 시민운동 조직이 절실합니다.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는 앞으로 해외 민주주의의 발전에 미력하나마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우리나라 활동가들이 해외에서 우리의 민주화운동, 민주주의를 소개하고 그 나라의 민주주의가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법도 찾아보겠습니다.

『민주누리』 3호는 '아시아 민주주의'를 특집으로 다뤘습니다. 아시아 시민들의 자유와 인권이 존중되고 민주주의의 보편적 가치가 아시아 지역에 정착되기를 바랍니다. 발간을 위해 노력해주신 필자, 기획위원 등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민주누리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이사장
박 상 증